

역사소설 『웨이벌리』의 문학적 성취*

김 명 환**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월터 스콧의 첫 역사소설 『웨이벌리』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한다. 우선 작품에 그려진 재커바이트 반란이 당대의 근대 세계질서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일환임을 밝힘으로써 아직도 그 비평사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루카치의 스콧 논의가 서구중심주의적 한계에 물들어 있음을 밝힌다. 또한 결말을 포함하여 작품 전반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으로 형성된 연합왕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긍정한다는 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가난한 민중과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 전혀 다른 측면 또한 존재함을 입증한다. 스콧은 로맨스, 고딕 소설, 셰익스피어 사극, 당대의 사실주의 소설 양식의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급속도로 사라져가던 고지대 전통 사회가 지녔던 인간적인 잠재력과 미덕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데 성공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원 집담회>의 성과물 중 하나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제어: 월터 스콧, ‘웨이벌리 소설’, 역사소설, 로맨스, 고딕소설, 셰익스피어 사극, 스코틀랜드, 재커바이트 반란

Walter Scott, the Waverley Novels, historical novel, romance, Gothic novel, Shakespeare's histories, Scotland, the Jacobite Rebellion

1. 들어가며

윌터 스콧(Walter Scott, 1771-1832)이 1814년에 익명으로 발표한 『웨이벌리: 60년 전 이야기』(*Waverley: or, 'Tis Sixty Years Since*)와 뒤를 이은 일련의 역사소설은 ‘『웨이벌리』의 저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웨이벌리 소설’(The Waverley Novels)이라고 통칭한다. 서구 소설사의 중요한 성과로서 스콧의 역사소설은 당대 독자층을 상대로 놀라운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고, 프랑스의 발자끄(Honoré de Balzac), 러시아의 푸쉬킨(A. S. Pushkin), 이탈리아의 만쥬니(Alessandro Manzoni), 미국의 쿠퍼(J. F. Cooper) 등 당대의 주요 서구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스콧의 역사소설은 근대적 역사의식의 태동에 힘입은 것인 동시에 그러한 역사의식에 기여한 문학적 성취였다.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이 스콧의 작품에 담긴 근대적 역사의식을 낳았고, 이후 지질학과 진화론 등 과학 발전이 시간관을 혁신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다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¹⁾ 그러나 스콧의 소설은 19세기 중반 이후 오랫동안 청소년용으로 더 널리 읽히는 등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 중엽에 재평가된다. 널리 인정되듯이 스콧의 재평가는 데이빗 데이쉬즈(David Daiches)가 1951년에 쓴 『소설가 스콧의 성취』(“Scott’s Achievement as a Novelist”)와 맑스주의 비평가 루카치(G. Lukács)가 1937년에 썼지만 1962년에 영어로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역사소설론』(*The Historical Novel*)이 중요한 계기였다.²⁾ 특히 루카치는 근대 역사소설의 창시자로서 스콧 문학의 의의와 19세기 유럽문학에 끼친

1) Michael Bell (1997), *Literature, Modernism, and Myth: Belief and Responsibility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P, p. 30.

2) David Daiches (1951), “Scott’s Achievement as a Novelist”, *Nineteenth-Century Fiction*, 6 (2-3); Georg Lukács (1962), *The Historical Novel*, Harmondsworth: Penguin.

심대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지금도 고전적인 성과로 남아 있다.³⁾

영미권에서 스코트의 역사소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보여주었듯이, 스코트 작품이 제기하는 쟁점들이 21세기에도 현재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빈곤하다고 할 정도로 부진하며,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스코트 관련 논문이 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작품 번역도 윤후남이 2005년에 내놓은 『웨이벌리』와 한 해 앞선 서미석 번역의 『아이반호』(Ivanhoe) 외에는 읽을 만한 판본이 별로 없다. 영국 소설의 흐름에 대한 온당한 이해를 위해서 연구의 진전이 절실하다.

이 글은 『웨이벌리』가 역사소설로서 거둔 성취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코트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따져보는 동시에, 시인으로서 문학적 성공을 이미 거둔 작가가 소설 장르에 도전하여 로맨스, 고딕 소설, 사실주의 소설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주목한다. 작가는 1장 「서문」에서 주인공 에드워드 웨이벌리(Edward Waverley)를 두고 “나는 내 주인공을 위해, 깨끗한 방패를 든 신참 기사처럼 오염되지 않은 이름이자 선악 어느 한 쪽의 어감도 거의 없는 웨이벌리를 정했다”⁴⁾고 하면서 기존 소설에 흔한 주인공 이름을 택했을 때 생길 선입견을 경계한다. 부제 또한 ‘감성소설’(sentimental fiction)이나 고딕 소설을 연상시키는 상투 어구를 피하느라 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힌다. 여기서 우리는 스코트가

3) Avrom Fleishman (1971), *The English Historical Novel: Walter Scott to Virginia Woolf*.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p. xiv.; David Brown (1979), *Walter Scott and the Historical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2-3.

4) Walter Scott (2015), *Waverley: or, 'Tis Sixty Years Since*, Oxford: Oxford UP, p. 3. 작품 텍스트는 1814년의 초판을 따른 옥스퍼드대 출판사본을 택했으며, 앞으로 텍스트 인용은 본문의 인용 뒤에 괄호로 면수를 표시한다. 다만, 일부 인명표기에서 편의상 1829년 판본을 채택한 펍권판을 따랐다. 초판에서는 역사적 등장인물의 이름이 종종 “Colonel G-”처럼 첫 자만 표기되지만, 1829년 판본은 “Colonel Gardiner”처럼 이름 전체가 표기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다양한 흐름을 예리하게 의식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⁵⁾ 그는 『웨이벌리』를 쓰는 과정에서 당대에 번성하던 사실주의 소설뿐 아니라 기성의 로맨스나 고딕 소설, 셰익스피어 사극, 스코틀랜드의 민담과 민요 등 다채로운 문학적 자산을 활용했다. 이처럼 소설 장르 자체를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이질적 장르들을 융합함으로써 스코트는 근대 역사소설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⁶⁾

2. 『웨이벌리』의 역사적 배경: 루카치 논의의 재검토

『웨이벌리』를 새로이 논하려면 루카치의 역사소설론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루카치의 주장은 지금도 스코트 연구의 획기적인 성과로 인정받는다. 물론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인데,⁷⁾ 한 가지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카치는 혁명과 뒤이어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다수 대중에게 역사가 자기 자신의 주체적 경험이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과거에는 주로 용병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평범한 대중은 역사적 격변을 자신의 삶과 무관한 구경거리로 겪었다. 그러나 혁명과 이후의 과정에서 대중을 국민군으로 조직하게 됨으로써 역사적 사건이 대중 자신의 체험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근대적인 역사의식의 탄생, 근대 민

5) Ann Wierda Rowland (2008), "Sentimental Fiction",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p. 191.

6) Richard Maxwell (2008), "The Historical Novel",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p. 75.

7) Brown은 스코트의 복합성을 루카치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태도가 이미 1970년대에 영미권 학계에 지배적임을 꼬집고 있다. David Brown (1979), pp 3-4.

족과 민족주의의 형성을 가져온 새로운 역사적 경험 위에서 스코트의 역사 소설 탄생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 영국(The United Kingdom of England and Scotland)의 일반 대중이 대륙의 격변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카치의 주장을 과도한 일반화로 볼 여지가 있다. 평민 출신의 초급 포병장교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이 상징하듯이, 말단 병사가 장교는 물론이고 장군까지도 될 수 있었던 프랑스의 경험에 근거한 루카치의 논의는 분명히 영국의 역사적 경험과 거리가 있다. 『웨이벌리』에 등장하는 군대와 병사들의 모습 또한 루카치의 설명과 어긋난다. 재커바이트 반란(The Jacobite rebellion)에 합류한 스코틀랜드 고지대(The Highlands)의 전통 사회인 부족(clan)의 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압군 병사들도 군 경력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열망하거나 성취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권위와 기율에 대한 충성심이 작품의 영국군을 지배하고 있으며, 평범한 개인이 전공을 세워 출세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물론 작품 배경보다 60여 년 후인 출간 당시의 영국군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나폴레옹식의 출세 경험은 어려웠지만, 프랑스처럼 영국군도 국민군의 성격이 커져서 루카치의 분석과 부합하는 면이 많아졌다고 봐야 옳다.

어쨌든 루카치가 근대 역사소설의 효시로 추켜세운 스코트의 작품은 정작 『역사소설론』의 이론적 틀과 괴리되는 면이 많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과 그 심원한 영향은 영국이라는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근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툰 서구 열강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역사학의 최근 성과를 논하

8) 1805년에 집필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후 장기간 분실했던 초고를 다시 발견해 1814년에 완성했다는 작가의 (다분히 허구적인) 작품 서문에 대해 Simpson은 1805년은 역사적 고비였던 트라팔가 해전의 해이고 1804년은 워털루 전투의 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대 유럽의 정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어야 함을 강조한다. Michael Simpson (2005), "Wavering on Europe: Walter Scott and the Equilibrium of the Empires", *Romanticism* 11 (2), p. 133.

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선다.⁹⁾ 그러나 『웨이벌리』의 중심 사건인 1745년 재커바이트의 반란은 당대 유럽, 나아가 근대 세계체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조명해야 한다.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축출된 제임스 2세의 아들 제임스 에드워드(James Edward Stuart, the Old Pretender, 1688-1766)와 그의 아들 찰스 에드워드(Charles Edward Stuart, the Young Pretender, 1720-1788), 즉 두 사람의 왕위 요구자/주장자는 프랑스에서 스튜어트 왕가의 복위를 도모했고, 이는 수차례의 재커바이트 반란 및 반란 기도로 표출되었다. 재커바이트 세력은 입헌군주제를 확립한 후 농업자본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을 통해 산업혁명을 예비하던 대브리튼(Great Britain) 섬의 정치적 근심거리였다.

그런데 재커바이트 반란을 영국에 국한시켜 하노버 왕가의 근대적 입헌군주제와 스튜어트 왕가의 잔재 세력 간의 쟁투로만 보는 것은 편협하다. 오히려 재커바이트 반란은 영국이 근대 세계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서구 각국과 경쟁했던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에 대륙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으로 9년 전쟁(1688-1697),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1748), 7년 전쟁(1756-1763) 등을 들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중심이었던 이 전쟁들은 유럽대륙이 주요 전장이었지만,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7년 전쟁은 신대륙까지 확대되어 북미지역의 전쟁을 ‘프랑스-인디언 전쟁’(The French and Indian War)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1715년과 1745년의 재커바이트 반란은 이러한 전유럽적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715년 첫 반란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직후에 벌어지며, 1745년 반란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의 와중에 터진다. 13장에서 재커바이트 귀족인 브래다딘 남작(Baron Bradwardine)이 1709년 스

9) 대표적인 최근 연구성과로 Christopher A. Whately (2014), *The Scots and the Union: Then and Now*. Edinburgh: Edinburgh UP, ix-xiv, 1-25.

페인 왕위계승전쟁의 한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과거가 언급되는데, 프랑스의 마레샬 공작(Mareschal, Duke of Berwick)이 함께 싸운 장군이라는 사실에서 그가 영국에 맞선 프랑스-스페인 연합군 편이었음이 드러난다. 한편 1715년 반란 때 영국 정부가 동원하여 스코틀란드에 진주한 네덜란드 동맹군의 행패로 지역민의 원성이 높았던 사실도 언급되며, 50장에서 반란군 지도자인 퍼거스 매키버(Fergus Mac-Iver)는 영국 왕 조지 2세의 막내아들인 진압군 사령관 컴버랜드 공작(Duke of Cumberland)이 불과 몇 달 전에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의 폰트누와(Fontenoy) 전투에서 프랑스에 패한 일을 비웃는다. 또 웨이벌리가 입대하는 가디너 대령(Colonel Gardiner)의 부대가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서 갓 귀환했다는 대목에서 당시 영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이 거듭 드러난다. 재키바이트 반란에 가담한 웨이벌리는 전투 중에 포위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군 지휘관을 구한 후, 그가 백부와 절친한 톨벗 대령(Colonel Talbot)임을 알게 되자 몹시 놀란다. 웨이벌리는 대령이 아직 외국에 있어 싸움터에서 마주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인물의 하나인 톨벗 대령 역시 해외 파병에서 돌아오자마자 반란 진압에 투입된 장교이며, 이처럼 서구 열강의 패권 쟁탈전이었던 당시의 전쟁들은 텍스트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영국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업은 왕위 요구자들의 반란은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니라 18세기에 근대 세계질서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던 영국이 최대 경쟁자인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등과 벌인 긴 싸움의 일부였다. ‘명예혁명’도 프랑스의 영향력을 배척하기 위해 의회가 왕조 교체를 결행한 면이 있고,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란드의 합병도 스코틀란드가 도버 해협 건너편의 적대 세력에게 교두보가 되는 것을 막을 목적이 컸다.¹⁰⁾ 그렇다면 루카치의 입론은 스코트 문학을 대혁

10) 이영석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란드의 연합왕국이 성립된 배경을 분석하면서 스코틀란드의 유력 정치인과 상인들이 파나마에 건설하려던 식민지가 스페인의 점령으

명을 중심으로 논하는 가운데 당시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하며 서로 다투던 역사적 현실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비판할만하다.

물론 스콧 자신도 재커바이트 반란을 국제적인 헤게모니 싸움의 일환으로 분명히 인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을 주된 축으로 그리는 가운데 두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이질성을 부각시키면서 대브리튼 섬을 우위에 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앞선다. 또 등장인물들의 해외 참전 경험은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없는데, 작가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쳐져 연합왕국이 됨으로써 영국이라는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만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¹¹⁾ 그럴수록 루카치의 입론에 담긴 서구중심주의적 한계를 인식해야만 스콧 문학의 의의를 한층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3. 스콧 문학의 ‘보수성’

주인공의 아버지 리처드(Richard) 웨이벌리는 하노버 왕조에 충실한 휘그(Whig)파 출세주의자로서 아내와 사별한 상태에서 골수 재커바이트인 독신의 형과 정치적 이유로 의절하고 지낸다. 그러나 가문의 후계자 격인 어린 웨이벌리가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백부의 마음을 녹이는 바람에 형제 사이가 회복되며, 주인공은 곧 백부의 저택 웨이벌리-오너(Waverley-Honour)로 옮겨가 백부와 역시 독신의 레이철(Rachel) 고모

로 실패하여 큰 손실을 낸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꼽는다. 이영석 (2014),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서울: 아가넷, pp. 107-117.

11)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해외에 파견된 군인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 작품이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해외에 나가 싸운 군인들의 경험이 탐구되지 않기로 말하자면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 중에 귀향한 군인들이 등장하는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나 『설득』(Persuasion)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밑에서 성장한다. 그는 엄한 교육과 거리가 먼 환경에서 로맨스 문학작품에 탐닉하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낭만적인 철부지로 자란다. 백부와 고모는 조카가 신분은 낮은 처녀와 눈먼 사랑에 빠질 위기가 닥치자 이를 피할 방편으로 그를 멀리 스코틀란드에 주둔한 부대에 장교로 입대시킨다. 낯선 고장에서 웨이벌리는 브래다딘 남작과 그의 외동딸 로즈(Rose)와 가까워지는데, 남작은 백부와 친분이 두터운 재커바이트이며 고지대에 인접한 곳에 그의 영지 툴리 비올란(Tully-Veolan)이 자리잡고 있다. 웨이벌리는 고지대인들이 남작의 소를 훔쳐가는 사건을 계기로 매 키버와 플로라 남매를 알게 된 후, 그들에 끌려 별다른 정치적 신념도 없이 재커바이트 반란에 가담했다가 반란의 와중에서 반역자로 몰리는 곤경을 넘기고 로즈와 결혼하여 행복을 찾는다.

작품 결말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와 백부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브래다딘 남작의 사위가 됨으로써 명실공히 잉글랜드의 “하노버 왕가 지지 세력과 스튜어트 왕가 동조 세력뿐 아니라 스코틀란드의 재커바이트 세력까지도 종합”¹²⁾한다.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은 당대 지배층의 통합을 통해 마침내 사회 질서가 안정되는 것을 뜻한다. 그 점에서 『웨이벌리』가 막 형성되던 당대의 주류적 질서를 긍정하는 것은 틀림없다. 사실 스콧이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역사소설을 썼다는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의 평가는 19세기 중반 이래 스콧을 바라보는 통념이기도 했다.¹³⁾ 루카치 역시 스콧이 휘그 아닌 “양심적인 토리(Tory)”였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 상업경제의 확산에 고통받는 가난한 대중에게 더 공감했다고 본다.¹⁴⁾ 그러나 18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서 오래된 기성질서라기보다는 새롭게 형성 중인 질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과연 보

12) 전수용 (1998), 「월터 스콧 Walter Scott」, 근대영미소설학회 편 『19세기 영국소설 강의』, 서울: 민음사, p. 67.

13) Avrom Fleishman (1971), p. 46.

14) Georg Lukács (1962), pp. 31-33.

수주의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원래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의 왕위 승계를 긍정하는 세력을 토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면, 스콧을 토리로 부를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만큼 작품의 보수성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으며, 작품의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가운데 세심해야 판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가령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평가는 배격해야 할 안이한 태도이다. 그는 스콧이 동시대의 제인 오스틴(Jane Austen)과 함께 영국소설의 보수적 성향을 틀 지웠다고 결론내린다.¹⁵⁾ 이것은 루카치에 비해 스콧을 훨씬 가볍게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카치의 스콧 평가를 제대로 비판한 끝에 나온 판단도 아니다. 한 술 더 떠서 최근 연구에는 스콧 소설이 식민주의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막디시(Saree Makdisi)는 루카치가 스콧 작품에서 스코틀랜드의 옛 사회구성체의 몰락 과정이 객관적으로 그려졌다고 상찬하는 점을 공격하면서, 루카치가 과거의 현실로 본 사회구성체는 실제로 스콧이 작품을 쓰던 시점에서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였다고 주장한다.¹⁶⁾ 다시 말해, 고지대의 전통 사회는 1745년 반란의 실패 후에 급속도로 파괴되었다는 『웨이벌리』 마지막 장의 서술과 달리 19세기 초에 비로소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칼 맑스(Karl Marx)의 『자본』(*Das Kapital*)을 인용하면서 대규모 양 방목을 위해 고지대의 부족 사회를 가혹하게 파괴한 “고지대 경지정리”(the Highland Clearances)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국 건설에 나선 영국이 내면화한 식민주의 담론, 즉 고지대인들은 스스로 사회 개량에 나설 역량이 없어서 그들을 축출한 후에야 고지대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작품 밑바닥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대영제국이 인도 등의 식민지를 대하는 전형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15) Terry Eagleton (2005), *The English Novel: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p. 94-122.

16) Saree Makdisi (1998), *Romantic Imperialism: Universal Empire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P, p. 76.

따라서 막디시는 『웨이벌리』는 표면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사라진 과거를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현재 속에서) 상징적으로 고지대를 ‘살해’함으로써 (과거 속에서) 고지대를 ‘살아있게’ 한다”¹⁷⁾고 평가한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내적 식민지로 삼는 과정으로 작품을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일방적이다. 재커바이트 반란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사회경제적 격차 못지않은 스코틀랜드 내부의 지역 갈등, 즉 낙후된 산악 지대인 고지대와 잉글랜드 북부와 다를 바 없는 저지대(The Lowlands)의 대립, 스튜어트 왕가와 하노버 왕가의 정통성 문제,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교회, 스코틀랜드의 주류인 장로교와 그 다양한 분파, 스코틀랜드 국교회(The Episcopalian Church) 등이 얽히고 설킨 사연까지 가세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¹⁸⁾ 근대를 앞서간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통합 과정에 식민화의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가령 식민지인 아일랜드와 동렬에 놓는다면 복잡한 역사 현실을 단순화하는 무리한 해석을 낳게 된다.

독신의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사망한 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가 됨으로써 튜더 왕조에 이어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고, 이후 내전기를 제외하면 명예혁명 전까지 17세기 내내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함께 다스렸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전형적인 식민지 역사라고 말하기 난감하다. 또 스코틀랜드 내부에서 고지대와 저지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어느 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보다 더 심각했다. 작품에도 잘 그려지지만, 18세기 중엽의 저지대는 북부 잉글랜드와 차이가 없다. 고지대에 인접한 지역의 영주인 브래다딘 남작의 생활은 잉글랜드의 주도세력인 개명한 토지소유층의 삶과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고지대의 도적들이 툴리 비올란의 소를 훔쳐가는 사건이 보여주듯이, 망명한 스튜

17) Makdisi (1988), p. 98.

18) 스코틀랜드 합병 전후의 스코틀랜드인에 대한 잉글랜드인의 여론, 저지대와 고지대의 큰 차이 등에 대해서는 Linda Colley (1992),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P, pp. 12-18.

어트 왕가에 대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남작의 경제 기반은 이미 ‘잉글랜드화’되어 고지대인들의 궁핍한 삶과 갈등관계였던 것이다.

종교 문제도 빠뜨릴 수 없다. 내전을 전후한 영국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종교야말로 복잡하고 중요한 변수이지만,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망명한 스튜어트 왕가와 대륙의 가톨릭 세력에 대해 대브리튼 섬의 다수 인구는 종교적 의심과 반감이 컸다. 또한 내전기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와 잉글랜드의 국교(The Church of England) 사이에 갈등이 컸고, 전자 안에서도 교리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분파들이 존재했다. 1816년에 나온 『올드 모델러티』(Old Mortality)와 달리 『웨이벌리』에서는 종교 대립이 작품의 주된 갈등이 아니지만, 반란의 무리가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가톨릭 신도라는 사실은 그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어 권좌를 되찾기 어렵게 하는 으뜸가는 요소였다. 이처럼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두루 고려할 때 식민주의의 틀로 스코트 소설을 분석하는 것은 도식적이다. 막디시의 주장처럼 『웨이벌리』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이해를 합리화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합리화에 저항하는 면도 공존한다는 설명이 더 합당하다.¹⁹⁾

한편 햄닛(Brian Hamnett)은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The Scottish Enlightenment)의 발흥이라는 맥락에서 스코트 문학에 접근한다.²⁰⁾

19) Andrew Lincoln (2007), *Walter Scott and Modernity*, Edinburgh: Edinburgh UP, p. 26.

20) Brian Hamnett (2011), *The Historical Novel in Nineteenth-Century Europe: Representations of Reality in History and Fiction*, Oxford: Oxford UP, pp. 75-99. 19세기의 첫 10년간 영국 전체에서 발간된 소설 중 스코틀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0.5%였는데, 1810년대에 4.4%, 1820년대에 12%로 급증하고, 스코트 자신의 파산을 불러온 1826년의 전국적 경제위기 직전인 1822-25년에는 최정점인 15%(총 359종 중 54종)에 달했다. Duncan에 따르면, 스코트가 사망한 1832년 이후 스코틀랜드의 소설 출간은 급속히 쇠퇴하지만, ‘웨이벌리 소설’ 씨리즈는 낭만주의 시대 소설의 큰 변화의 계기였다. 즉 소설 출간과 홍보가 전문화되었고 ‘3권 1질 소설’(three-volume novel)의 형식이 표준화되는 동시에, 주로 여성 작가가 쓰는 열등한 장르라는 과거의 위상에서도 벗어났다. 한마디로, 스코틀랜드라는 주변부가 19세기 영국 소설 출판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Ian Duncan (2008),

합병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법, 교육, 화폐 제도 등은 잉글랜드와 다른 독자성을 유지했으며, 이는 합병 후에 긍정적 효과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710년 저작권 법(The Copyright Act of 1710) 시행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법정은 잉글랜드보다 저작권을 더 보호함으로써 스코틀랜드 주요 도시에서 인쇄출판업이 번영하여 1750년대에는 런던에 도전할 정도가 되었고, 이러한 물질 기반 덕택에 19세기 초 ‘웨이벌리 소설’이 출간될 때 에딘버러는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더 나아가, 스코트는 데이빗 흄(David Hume, 1711-1776),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아담 퍼거슨(Adam Ferguson, 1723-1816), 듀갈 스투워트(Dugal Stewart, 1753-1828) 등이 이끈 계몽주의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의 뒤떨어진 현실, 다시 말해, 복고적인 재커바이트주의, 근대 시민적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고지대의 전통, 장로교회에 남아 있는 종교적 광신 등의 낡은 잔재를 작품을 통해 가차없이 비판할 수 있었다.²¹⁾ 이 측면에서 스코트 문학은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이라 불려야 옳다.

막디시, 링컨, 햄닛은 각자의 방식으로 스코트 소설의 정치적 성격을 파헤치지만,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의 사회 변화와 계몽주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햄닛이 가장 흥미롭다. 물론 그는 스코트의 역사 왜곡이 역사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바로 이때 합병으로 성립한 연합왕국의 야만적인 측면이 누락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막디시와 의견이 같다. 또 햄닛은 기존의 『에딘버러 리뷰』(Edinburgh Review)보다 영향력이 더 커진 『블랙우드 에딘버러 매거진』(Blackwood's Edinburgh Magazine)이 1810년대 후반에 흄이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슐레겔(F. Schlegel)의

“Scotland and the Novel”,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pp. 251-52.

21) Hamnett 외에도 이미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펼 스코트 비평가들이 있다. 가령, Brown (1979), pp. 196-97.

국민문학론을 선호하게 되면서 스코트 문학이 ‘토리 낭만주의’에 흡수되어 실제의 작품 내용과 다른 이미지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진단한다.²²⁾ 그러나 햄닛에게는 구체적 작품 논의가 없어 계몽주의나 토리 낭만주의의 어느 한쪽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학적 성취를 스코트의 역사소설이 달성했을 가능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지면의 제약으로 작품을 충분히 파고들 수는 없지만, 스코트가 스코틀랜드 민중과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룩한 문학적 성과가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면을 찾아보아야 한다.

4. 고지대 민중과 문화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작품에서 스코틀랜드는 철부지 청년이자 낯선 이방인인 웨이벌리의 눈으로 그려진다. 고지대와 저지대의 접경에 있는 톨리 비올란에 도착한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민중의 삶은 마치 낯설게하기 효과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더 가까이 살펴보면 그들의 외모는 우둔함이 드러내는 무관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의 모습은 거칠었지만, 매우 총명하고 진지하며 우둔함과는 정반대였다. 그리고 미술가라면 젊은 여성 중에는 생김새와 자태가 미네르바 여신을 닮은 모델을 여럿 고를 수 있을 정도였다. 아이들 또한 햇볕에 검게 탄 피부와 색이 바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생기와 호기심에 찬 표정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대체로 궁핍, 그리고 궁핍에 흔히 따라붙는 나태함이 합쳐져서 강인하고 총명하며 생각 깊은 농민의 타고난 재주와 배워 익힌 견문을 값아먹고 있다는 인상이었다.(37)

22) Hamnett (2011), p. 99; Ian Duncan (2007), *Scott's Shadow: The Novel in Romantic Edinburgh*, Princeton: Princeton UP, pp. 21-22, 47-49, 57-58.

틀리 비올란과 그보다 더 북쪽의 고지대 민중의 생활은 궁핍하고 낙후된 것이지만, 그들의 사람됨은 훌륭하며 가난 탓에 인간적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교활한 도적 두목 도널드 베인 레인(Donald Bean Lean)의 딸 앨리스(Alice)도 마찬가지이다. 엄마는 없지만 총명하고 젊은 처녀 앨리스는 빈한한 살림을 초인적일만큼 잘 꾸려가면서 남몰래 로즈를 힘껏 도와 자신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고지대의 전통 사회는 근대화의 물결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삭빠른 수지타산이나 물질만 밝히는 편협함과 무관한 인간다운 면모가 약여하다.

근대적 기풍과 섞일 수 없는 부족사회의 행동양식이 가장 극적인 대목은 반란이 실패한 후 매키버와 함께 체포된 심복인 에반 듀 매콤비치(Evan Duh Maccombich)가 자신을 풀어주면 고지대로 돌아가서 족장 매키버 대신에 사형당할 사람 6명을 자신까지 포함하여 데리고 오겠다고 법정에서 제안하는 대목이다. 법정과 방청객은 그의 제안을 어처구니없다며 비웃고 넘어가지만, 이것은 부족 사회의 전통에 따른 명예롭고 영웅적인 행동이다. 매키버는 죽음을 앞두고 웨이벌리와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웨이벌리가 자신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지만, 그 희망은 헛된 것이고 비치 이안 보흐(Vich Ian Vohr - “존왕의 아들”이라는 뜻의 게일어로서 족장으로서 매키버의 존엄한 지위를 나타냄 - 필자)의 자리는 자신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한다. 그만큼 고지대의 어떤 덕목과 사고방식은 근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 에반 듀의 행동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작품에 그려진 고지대의 갑남을녀들에게 잉글랜드가 잃어버린 인간적 자질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런 현실묘사를 식민주의적 사고에 물들었다거나 한낱 복고적인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상 언어부터 영어 아닌 게일어(Gaelic)를 쓰는 고지대의 독특한 삶과 문화를 그리는 스코트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은 여주인공인

플로라와 로즈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플로라가 고지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부터 살펴보자.

글레나코이치의 외진 지역에 터전을 잡고 나자, 그녀는 프랑스, 잉글랜드, 이탈리아 문학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방해를 받는 일이 잦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한가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고지대인들의 음악과 시적 전통에 할애했고, 그러한 노력에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면에 그녀의 오빠는 문학적 감식안이 무딘 사람이어서 실감 때문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가장했다.(111-12)

앞서도 언급했지만, 매키버 남매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스튜어트 왕가와 함께 지내다가 틈을 봐서 고향으로 돌아와 반란 세력을 규합하는 중이며, 성장 과정에서 프랑스 긍정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라가 고지대의 시와 음악에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스콧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인물인 플로라가 고지대 문화에 진실한 애정을 품게 만들었으므로 여러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플로라는 처음에 매우 차갑고 신비화된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낭만적으로 바라보려는 주인공의 눈에 비친 모습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플로라와 짝사랑에 빠지는 대목에서 스콧은 로맨스에 흔한 남녀관계 설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22장에서 아름다운 고지대 계곡의 폭포수 아래에서 웨이벌리가 플로라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매혹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플로라는 로맨스의 정형인 범접 못할 귀공녀가 결코 아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왕위 요구자의 아내인 소비에스키(Sobieski) 왕세자비의 후원으로 수녀원에서 자란 덕분에 스튜어트 왕가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가난한 동포를 돕는 플로

라의 열정은 오빠의 권력욕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플로라 역시 가부장적인 지배력을 소중히 하는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려는 조바심을 똑같이 느꼈지만, 이것은 그 시대와 지역의 통념에 따라 자신의 오빠가 타고난 권리로서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빈곤, 또는 적어도 생필품 부족과 외국의 압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고결한 바램에서 나온 것이었다. 소비에스키 왕세자비에 게 받는 작은 보조금을 아낀 그녀의 저축은 빈농들의 안락함—이 말은 분명히 빈농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었다—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프거나 극도로 늙었을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을 대기 위해 바쳐졌다.(112)

또 다음 대목이 보여주듯이 플로라는 로맨스나 고딕소설의 차디찬 귀부인이라서가 아니라 로즈가 웨이벌리를 연모하는 것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그를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로즈에 대한 플로라의 따뜻한 애정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로즈는 웨이벌리에게 남자들이 외면하지 못할 매력을 지녔는데, 그것은 웨이벌리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녀가 두드러지게 관심을 쏟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로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끊임없이 웨이벌리에게 관심을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지 못했다. 로즈의 아버지는 학문과 군대에 관한 토론에만 마음을 빼앗겨 딸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플로라 매키버도 로즈를 꾸짖어 경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통해 로즈가 마침내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로즈는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예리하고 지적인 벳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며, 그때부터 플로라는 웨이벌리의 구애를 끝내 거절하기로 마음을 굳혔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사랑이 벳 로즈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애태웠다.(273-74)

플로라와 로즈의 관계를 보면 플로라의 형상화에 동원된 로맨스 요소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며 꼭 필요한 만큼 활용되고 있다.²³⁾ 반면에 로즈는 비교하건대 오스틴의 『노생거 애비』(*Northanger Abbey*)에서 헨리 틸니(Henry Tilney)를 사랑하는 캐서린 모얼런드(Catherine Morland)의 어리고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성품과 무척 닮아 있다. 그만큼 웨이벌리, 로즈, 플로라의 삼각관계는 당대의 사실주의 소설 전통에 근접한다.

오스틴 소설에 방불한 분위기는 지극히 정략결혼적인 태도를 지닌 퍼저스의 낡은 자세와 선명하게 대비된다. 퍼저스는 여동생 플로라를 웨이벌리와 맺어주고 자신은 로즈와 결혼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래 브래다딘 남작은 딸을 몹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姓)을 이어가기 위해 휘그적 성향이 의심되는 먼 친척 남자에게 영지를 물려주려는 완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퍼저스는 남작의 동의를 얻을 요량으로 자신이 브래다딘으로 성을 바꾸더라도 체통이 깎이지 않을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자신이 백작이 되면 성을 바뀌도 호칭상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왕위 요구자에게 백작의 작위를 받으려고 청원한다. 그러나 왕위 요구자로부터 백작 자리를 받기 어렵게 되자, 그는 주인공과 로즈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여차하면 주인공과 결투라도 벌이려 든다. 이런 매키버의 태도는 고지대의 가부장적 문화 탓도 있지만 권력투쟁에 익숙한 궁정 문화 때문이며, 사회적 지위와 부가 좌우하는 정략결혼 아닌 ‘동반자적 결혼’(companion-

23) 플로라의 형상화 외에 두드러진 비사실주의적 요소로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서 매키버가 홍조로서 거듭 목격하는 보다흐 글라스(Bodach Glas)라는 불길한 유령이 있다. 또 양가집 규수인 로즈가 웨이벌리를 구하기 위해 산적인 도널드 베인 레인과 뒷거래를 한다는 것도 로맨스적 설정의 요소가 짙다. 그러나 로즈의 형상화는 전체적으로 사실주의적 양식이 지배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봉건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며 상식에 입각해 재커바이트 반란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히는가 하면, 28장에서 그녀가 웨이벌리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도 젊은 여성다운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감성과 분별력이 돋보이는 내용으로서 오스틴 소설의 전통과 맥이 닿는다. Brown (1979), p. 22 참조.

ate marriage)을 탐구한 당대 사실주의 소설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플로라와 로즈가 반란군에 가담한 집안의 숙녀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웨이벌리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을 낭송하는 54장도 중요한 대목이다. 낭송에 앞서 고지대와 저지대 숙녀들 사이에 문학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미 웨이벌리는 플로라에 대한 짝사랑을 거두고 로즈를 향한 애정이 싹트고 있는 참이다.

게일어와 이탈리아어 중 어느 쪽이 유음이 많고 시에 적합한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곳에서라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을 게 일어를 여기서는 7명의 고지대 숙녀들이 열렬히 지지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게일어 음조의 예들을 듣다면서 옆 사람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목청껏 떠들어댔다. 저지대 숙녀들이 그들을 비웃는 것을 보고 플로라는 그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로즈는 이탈리아어가 더 낫다고 열띤 대답했는데, 웨이벌리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어를 약간 배웠던 탓이 컸다. “로즈는 더 정확한 귀를 가지고 있군, 플로라보다 덜 음악적이긴 하지만.” 웨이벌리가 혼자 중얼거렸다. “매키버 양이 이번에는 맥머로우 난 폰(작중 인물로서 게일어 음유시인 집안 출신의 노인—인용자)을 아리오스토(로맨스 문학의 대가인 16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인용자)에 비유하겠지.”(281)

플로라가 게일어와 게일어 문학을 옹호하는 데 비해, 로즈는 세련된 이탈리아 문학이 더 좋다고 한다. 로즈의 반응은 사랑하는 웨이벌리에게 이탈리아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다같은 재커바이트라도 문화적 선호는 이미 고지대와 저지대가 판이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어서 웨이벌리는 숙녀들을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몇 장면을 멋있게 낭송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즈를 포함한 몇몇 숙녀들은

이 작품을 처음 접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로즈가 문화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적어도 이 시점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셰익스피어라는 ‘국민 시인’(The National Bard)을 공유할 정도로 문화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황임을 읽을 수 있다. 또 매키버가 머큐시오(Mercutio)가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거나 매콤비치가 지엽적인 문제로 티볼트(Tybalt)를 비판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이 낡은 것으로 그리는 봉건적 가치와 덕목을 절대시하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아러니하게 부각된다.

이 대목에서 셰익스피어의 사극을 작가가 어떻게 소화했는지 잠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웨이벌리』에서 셰익스피어의 사극 중 “두번째 4부작”(The Second Tetralogy)이라고 흔히 칭해지는 『리처드 2세』(Richard II), 『헨리 4세 1, 2부』(Henry IV Part 1, 2), 『헨리 5세』(Henry V)에 대한 인용(引喻)이 자주 나온다. 가령, 재커바이트 반란군이 남하하여 잉글랜드를 침입했을 때, 주인공의 눈에 지역 주민이 반란군을 반기지 않는 모습은 “아무도 신이여 그를 축복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리처드 2세』의 한 구절을 활용하며 묘사된다. 왕 구실을 제대로 못한 리처드 2세가 훗날 그를 폐위시키고 헨리 4세로 즉위하는 헨리 볼링브록(Henry Bolingbroke)의 반란군에 패하여 강제로 런던으로 끌려올 때 나오는 이 대사는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리처드 2세와 재커바이트 반란군이 공유하는 정치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²⁴⁾

『리처드 2세』의 결말에서 헨리 4세는 자신의 측근이 폐위된 리처드 2세를 죽이도록 사실상 부추긴 탓에 후속작인 『헨리 4세 1, 2부』에서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에 도전하는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때 궁정 밖 부랑아들과 어울리며 망나니 노릇을 하던 왕세자인 할 왕자(Prince Hal)는 자신의 방식으로 민중의 삶을 익히면서 그들의 인기를 얻는 가운데 결국 아버지가 왕권을 다지는 것을 돕는다. 헨리 5세가 된

24) Brown (1979), p. 16.

할 왕자는 선왕의 유언에 따라 국내의 불만을 외국과의 전쟁으로 해소하는 길을 택하며, 『헨리 5세』에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선왕이 시작한 랑카스터 왕조(House of Lancaster)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과업을 완수한다. 이같은 4부작 사극의 흐름은 실제 『웨이벌리』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을 통해 국민국가가 안정되는 과정과 여러모로 유사하다.²⁵⁾ 헨리 4세가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의 각양각색인 봉건 영주들을 위무하거나 제압하는 과제를 떠안는 점, 내부의 안정을 외부의 적에 대한 단합을 통해 달성한다는 점, 또 폴스타프(Falstaff) 무리가 대변하는 주변부나 밑바닥 계층을 우군화하는 동시에 질서를 위해 일부는 배제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후진적인 층을 포함한 대중을 통합된 질서 아래 신민(臣民)으로 묶는 과제의 공통성은 무엇보다도 스콧이 “어느 왕 편이냐, 신참 병졸이? 말해라, 아니면 죽는다!”(Under which king, Bezonian? Speak, or die!)라는 『헨리 4세 2부』의 이름난 구절을 작품의 제사(題詞)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이런 면들이 루카치로 하여금 헤벨(Friedrich Hebbel)을 빌어 스콧이 셰익스피어의 후계자임을 지적하게 한다. 다만, 극과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징 때문에 사극은 극적 충돌에 집중함으로써 ‘운동의 총체성’을 보여주고, 역사소설은 사실주의에 기반한 ‘대상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²⁶⁾

스콧은 이처럼 사실주의를 골간으로 하되 로맨스, 고딕 소설, 셰익스피어 사극 등 다양한 문학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웨이벌리』의 문학적 성취를 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지대 평민들의 인간적 면모와 잠재력이 결코 낭만적으로 이상화되지 않고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그려진다. 이는 『웨이벌리』를 단순히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뿐더러, 앞서 말한대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나 토리 낭만주의의 어느 한쪽으로 간단

25) Daiches도 『웨이벌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헨리 4세 1, 2부』와 유사성이 많음을 지적한다. Daiches (1951), pp. 171-72.

26) Georg Lukács (1962), pp. 101-22.

히 분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근대 소설의 주된 양식인 사실주의가 작품의 근간을 이룸으로써 그러한 성과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스콧이 근대 역사소설의 창시자가 된 배경에는 스코틀랜드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인 「서문이 되었어야 할 후기」에서 그 점을 작가 자신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스코틀랜드 왕국처럼 반 세기, 혹은 반 세기를 별로 넘지 못하는 기간에 완전히 변모한 유럽의 나라는 없다. 1745년 반란의 영향, 즉 고지대 족장의 가부장적 권력의 파괴, 저지대 귀족과 남작들의 상속가능한 권한의 폐지, 잉글랜드인과 섞이거나 그들의 관습을 택하기 싫어 옛 스코틀랜드의 풍속과 관습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온 재커바이트 당의 완벽한 절멸이 이러한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다.(375)

이처럼 짧은 기간에 벌어진 엄청난 변화 앞에서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적 판단이 긴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근대적 역사의식에 합당한 사실주의가 주된 양식이 됨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스콧에 앞서 역사를 다룬 소설을 쓴 제인 포터(Jane Porter)와 비교해도 확연하다. 포터는 13세기 말 14세기 초 잉글랜드에 맞서 싸운 전설적 인물 윌리엄 월러스(William Wallace)의 이야기를 소재로 1810년에 『스코틀랜드 족장들』(*The Scottish Chiefs*)을 내놓았다.²⁷⁾ 그러나 수백년 전의 영웅을 등장시키는 소설이 18세기 이래 빠르게 성장한 사실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는 힘들며,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지만 근대 역사소설의 이름을 부여하기에 곤란하다.

스콧의 소설은 오랜 기간 사실주의와 동떨어진 낭만적 문학으로 간주

27) 윌리엄 월러스는 멜 깁슨(Mel Gibson)과 쏘피 마르소(Sophie Marceau) 주연의 다분히 낭만적인 영화 <브레이브하트>(*Braveheart*, 1995)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인물이다.

되어왔고, 스코트 문학의 재평가에 불을 붙인 데이쉬즈와 루카치 모두 그런 통념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²⁸⁾ 이 점에서 페리스(Ina Ferris)가 스코트 문학을 당대에 유행했던 새로운 시각매체였던 파노라마(panorama), 디오라마(diorama), 밀랍인형 전시 등과 연결하여 스코트가 역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연구도 흥미롭다.²⁹⁾ 궁극적으로 시대착오적 인물이었던 족장 매키버를 해부하는 다음 대목은 어김없이 영소설 최고의 사실주의 작품에 전형적인 화자의 당당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퍼거스 매키버가 그가 산 시대보다 60년 앞서 살았더라면 심중팔구 지금의 세련된 행동거지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실제 산 시대보다 60년 뒤에 살았더라면 그의 야망과 지배욕은 현재 그의 상황이 제공한 동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작은 집단 내에서 그는 실로 카스트루치오 카스트루카니(마키아벨리가 전기를 쓴 13세기의 정치가-인용자) 못지않은 완벽한 정치가였다. 그는 인근의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모든 반목과 분쟁을 달래는 일에 매우 열심이어서 그런 싸움이 있을 때면 자주 중재자 역할을 하곤 했다.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온갖 비용을 다 부담함으로써 족장의 권력을 강화했으며, 세련되지 않아도 풍성한 접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는 족장으로서 갖춰야 할 아주 값진 특성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자신의 사유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실로 강건하고 전쟁 목적에 잘 맞는 소작인들을 자신의 영지에 가득 채웠는데, 이들은 그의 영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은 주로 그의 부족이었으며, 그는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중 단 한사람도 자신의 땅을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101-02)

28) Daiches (1951), pp. 81-82; Lukács (1962), pp. 33-34.

29) Ina Ferris (2013), “‘Before Our Eyes’: Romantic Historical Fiction and the Apparitions of Reading”, *Representations* 121 (1), pp. 61-62.

이처럼 탄탄한 사실주의의 뼈대 덕분에 심지어 고딕 소설 모티프의 활용도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인 작품 전개를 돕는다. 영국 고딕 소설의 효시로 꼽히는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의 『오트란토 성』(*The Castle of Otranto*, 1764)이 보여주듯이, 고딕 소설의 단골 주제는 왕권이나 가문의 상속권 승계의 정통성이다. 『웨이벌리』도 왕권, 웨이벌리-오너, 틀리 비올란 등의 계승이 핵심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고딕 소설에 익숙한 당대 독자들에게 친숙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깊이 있는 근대적 역사의식 덕분에 고딕 요소가 현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의 관심을 적절히 끌어내는 대중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³⁰⁾

5.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까지 『웨이벌리』에 극화된 18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현실이 당대 국제 질서의 패권을 둘러싼 쟁탈전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고지대 민중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갖가지 문학 양식의 요소를 활용하며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웨이벌리』를 쉽사리 보수적인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한 이해가 아님을 밝혔다고 믿는다.

물론 작품의 전개과정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두드러진 사례가 69장에서 매키버가 사형을 앞두고 웨이벌리에게 자신의 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간청하고 주인공이 훗날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오늘날도 고지대의 동굴들에서는 그의 기억이 살아 있다는 서술이다. 이 대목은 웨이벌리가 곤궁한 고지대 동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품의 한계를 강조하는 입장

30) Fiona Robertson (1994), *Legitimate Histories: Scott, Gothic, and the Authorities of Fiction*, Oxford: Oxford UP, pp. 8-14.

에게는 공격의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결말부의 퍼저스와 웨이벌리의 초상화에 관한 장면도 아쉽다. 브래다딘 남작은 웨이벌리가 되찾아준 자신의 저택을 돌아보다가 사위가 될 웨이벌리가 사형당한 퍼저스와 함께 고지대의 전통 복장인 타탄(tartan) 차림으로 하나의 화폭 안에 담긴 그림을 보게 된다. 이 초상화와 그 앞에서 경탄하는 브래다딘 남작의 마지막 모습이 스콧이 겨냥한 역사적 화해를 감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5절에서 분석했듯이, 스콧은 당시의 고지대뿐만 아니라 대브리튼 섬 전체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극화하는 가운데 계몽주의나 낭만주의의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설명할 수 없었던 터 보수적이라고 규정하기 곤란한 역사적 진실을 보여주었다. 평자에 따라서는 스콧 소설 중 최고작으로 꼽는 『하트 오브 미드로시안 감옥』(*The Heart of Midlothian*, 1818)에서 스코틀란드에서 런던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사형을 앞둔 여동생의 사면을 왕비로부터 얻어내는 평범한 시골 처녀 지니 디نز(Jeanie Deans)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성과가 잘 드러난다. 이런 성취는 갈수록 힘을 키우던 서구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거스르는 대안 제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것처럼 부정적인 역사적 전개에 저항하는 인간적 노력을 실감나게 그려낸 문학적 결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맥스웰(Richard Maxwell)은 스콧이 죽은 후 19세기 중후반의 영국 역사소설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다분히 로맨스/고딕적인 『노트르담의 꼽추』(*Notre-Dame de Paris*, 1831)의 영향을 더 받는 바람에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 1859)가 그러하듯이 오늘날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 드물다고 분석한다.³¹⁾ 그만큼 스콧 작품에 구현된 역사의식을 이후의 역사소설이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이다. 그 점에서 스콧이 구현한 역사의식의 경지는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위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

31) Richard Maxwell (2009), *The Historical Novel in Europe 1650-1950*, Cambridge: Cambridge UP, pp. 110-11.

1848)처럼 (보통 역사소설로 취급하지 않는) 걸작이 오히려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캐서린 언쇼(Catherine Earnshaw)의 워더링 하이츠의 세계와 에드가 린튼(Edgar Linton)의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Thrushcross Grange)의 세계가 히스클리프(Heathcliff)를 매개로 하여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갈등은 명백히 사회적·역사적 성격을 지니며, 우여곡절을 거쳐 다음 세대의 캐서린 린튼(Catherine Linton)과 헤어튼 언쇼(Hareton Earnshaw)의 결혼을 통해 하이츠의 삶은 그레인지의 삶에 흡수되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하이츠가 무력하게 몰락하는 것은 아니며, 하이츠가 지닌 긍정적인 인간적 가치가 캐서린과 헤어튼의 행복 속에 살아남음으로써 화해라는 말에 걸맞은 성취가 이루어진다.³²⁾ 이는 루카치가 『역사소설론』에서 스콧의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이 ‘역사로서의 현재’를 재현한 발자크 등에 의해 계승되었음을 강조하는 것과도 통한다. 『웨이벌리』에서 달성된 역사 의식이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소설가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계승되어 발전되었느냐는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리라 믿는다.

32) Leavis가 스콧을 ‘위대한 전통’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를 일급의 소설가로 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스콧의 역사소설이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같은 주요 작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놓치지 않는다. F. R. Leavis (1973),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 London: Chatto & Windus, pp. 50-51.

참고문헌

【자 료】

- 스콧, 월터(2005), 『웨이벌리』, 윤후남 옮김, 서울: 현대지성사.
_____ (2004), 『아이반호』, 서미석 옮김, 서울: 현대지성사.
Scott, Walter (2015), *Waverley: or, 'Tis Sixty Years Since*, Oxford: Oxford UP.
_____ (1972), *Waverley: or, 'Tis Sixty Years Since*, Harmondsworth: Penguin.

【논 저】

- 이영석(2014), 『지식인과 사회: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 서울: 아카넷.
전수용(1998), 『월터 스콧 Walter Scott』, 근대영미소설학회 편, 『19세기 영국소설 강의』, 서울: 민음사.
Bell, Michael (1997), *Literature, Modernism, and Myth: Belief and Responsibility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P.
Brown, David (1979), *Walter Scott and the Historical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Colley, Linda (1992),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P.
Daiches, David (1951), "Scott's Achievement as a Novelist." *Nineteenth-Century Fiction*, 6: 2-3.
Duncan, Ian (2008), "Scotland and the Novel."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_____ (2007), *Scott's Shadow: The Novel in Romantic Edinburgh*, Princeton: Princeton UP.
Eagleton, Terry (2005), *The English Novel: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Ferris, Ina (2013), "'Before Our Eyes': Romantic Historical Fiction and the Apparitions of Reading." *Representations* 121 (1).
Fleishman, Avrom (1971). *The English Historical Novel: Walter Scott to*

- Virginia Woolf*,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Goode, Mike (2009), *Sentimental Masculinity and the Rise of History, 1790-1890*, Cambridge: Cambridge UP.
- Hamnett, Brian (2011), *The Historical Novel in Nineteenth-Century Europe: Representations of Reality in History and Fiction*, Oxford: Oxford UP.
- Leavis, F. R. (1973),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 London: Chatto & Windus.
- Lincoln, Andrew (2007), *Walter Scott and Modernity*, Edinburgh: Edinburgh UP.
- Lukács, Georg (1962),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nnah and Stanley Mitchell. Harmondsworth: Penguin.
- Makdisi, Saree (1998), *Romantic Imperialism: Universal Empire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P.
- Maxwell, Richard (2009), *The Historical Novel in Europe, 1650-1950*, Cambridge: Cambridge UP.
- _____ (2008), "The Historical Novel." in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 Robertson, Fiona (1994), *Legitimate Histories: Scott, Gothic, and the Authorities of Fiction*, Oxford: Oxford UP.
- Rowland, Ann Wierda (2008), "Sentimental Fiction." Richard Maxwell and Katie Trumpen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Fiction in the Romantic Period*, Cambridge: Cambridge UP.
- Simpson, Michael (2005), "Wavering on Europe: Walter Scott and the Equilibrium of the Empires." *Romanticism* 11: 2.
- Whately, Christopher A. (2014), *The Scots and the Union: Then and Now*, Edinburgh: Edinburgh UP.

원고 접수일: 2016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6년 5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11일

ABSTRACT

Walter Scott's Achievement in *Waverley* as a
Modern Historical Novel

KIM, Myung-hwan*

This paper aims to examine Walter Scott's achievement in *Waverley*, his first historical novel. The Jacobite rebellions the novel depicts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the Western powers' struggle for the hegemony of the emerging modern world system, which will help u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ukács's Eurocentric views on Scott. *Waverley* as a whole including its ending is certainly "conservative," since it affirms the political entity of the United Kingdom of England and Scotland after the Union Act of 1707. Scott is, however, successful in creating a vivid portrait of poor but attractive and sometimes heroic Highlanders and their ethnic culture. By means of combining different elements of romance, Gothic fiction, Shakespeare's histories, and contemporary realist novel, Scott persuasively describes common Highlanders' virtues and their potential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encroaching modernity as well as the inevitable doom of their traditional society.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